

다니엘서 - 84번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네 세대의 베일을 벗기기: 성경적 평행성과 예언
검증을 통한 여정

Jeff Pippenger
2024-02-17

진리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립되며, 에스겔 8장의 네 가지 가증함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네 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러 증인이 있다. 앞선 글들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가 사도들의 때부터 세상 끝까지의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때부터 그리스도의 때까지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도 대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고대 이스라엘도 상징했다. 서머나 교회는 제자들의 시대부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때까지의 박해의 시기를 상징했으며, 또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도 상징했다.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이후부터 538년 교황권 수립에 이르기까지의 타협의 시기를 상징했을 뿐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며, 주변의 이방 왕국들과 끊임없이 타협하던 시기도 상징했다. 이세벨로 상징되는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교황 통치 시대를 상징했으며,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기도 상징했다.

그 네 교회는 재림주의의 네 세대를 대표할 뿐 아니라, 에스겔서의 네 가지 가증함을 그 네 세대에 적용하는 데 대한 증언을 제공한다. 1863년의 반역은 고대 이스라엘의 첫 세대로 상징되며,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으로 예시된다. 첫 번째 세대에는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권면이 포함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사랑을 떠났으며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함을 지적한다. 1863년에 윌리엄 밀러의 보석들(기초적인 진리들, 특히 '일곱 때')로 대표되는 처음 사랑이 제쳐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라는 권면을 받았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음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4, 5.

밀러파는 예레미야가 "조롱하는 자들의 회중"이라 부른 배도한 개신교와 씨름해 왔고, 환상이 임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것이 임하면 거짓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롱하는 자들의 회중"은 여로보암의 거짓된 예배를 책망했던 유다의 선지자에게 거짓말한 늙은 선지자로 대표되었다.

나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안다. 그리고 네가 자칭 사도라 하나 사실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된 자들로 드러낸 것도 안다. 또 네가 견디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도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안다. 요한계시록 2:2, 3.

둘째 교회인 스미르나 교회는 초대 교회의 박해의 시기를 상징했는데, 그 시기에는 진정한 순교자들과 거룩하지 못한 동기에서 스스로 박해를 자초한 이들도 있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에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를 대표했다. 1888년에 시작된 반역의 세대는 예언의 신과 그 시기의 택한 사자들, 그리고 성령을 향한 박해의 시기를 규정했다. 그것은 켈로그, 프레스콧, 대니얼스와 같은 이들에게서 보이듯,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의 원로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로 선택한 시기를 열었다.

그 시대의 소수의 신실한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한 무리와 사활을 건 영적 전투를 벌여야 했다. 그들이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자매의 증언대로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었다. 화이트 자매는 그들 중 일부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했으나 어리석었다. 그 시대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정죄가 내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격려가 주어졌다. 1915년, 화이트 자매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이 누구인지 안다"였는데, 그녀는 죽기까지 충성했기 때문이다.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실상은 네가 부요하니라).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훼방도 내가 아노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게 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9, 10.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진리와 오류, 이교와 기독교 사이의 타협을, 또 왕정 시대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타협을 상징했다. 그것은 진리와 오류의 혼합을 나타냈는데, 그런 혼합은 오직 오류만을 낳을 뿐이다. 그 타협은 1919년 성경 회의에서 드러났는데, 그 자리에서 배교한 개신교의 거짓 복음을 더 밀접하게 닮은 재림교회 기별을 만들기 위해 "The Doctrine of Christ"라는 책의 출간이 이루어졌다. 진리에 대한 큰 타협들은 재림운동의 세 번째 세대에서 일어났다.

1919년에 시작된 그 세대에 교회는 교회 매뉴얼의 제정을 낳은 타협을 시작했다. 1919년에 시작된 그 세대에 교회는 보건과 종교 계열의 학교들 모두에서 인가를 의무화하는 타협을 시작했다. 그 세대에 현대의 가톨릭 기반 성경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바로 그 역사에서 지도부가 공공연히 반기독교적인 정권들과 관계를 수립하려는 의지가 나타났다.

그 관행은 남북전쟁 당시 태동했다. 라오디게아적 지도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쟁에 징집될 교회 청년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미국 정부와 법적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에도 반복되었는데, 총회장 A. G. 다니엘스가 독일 정부와 교섭하며, 독일이 젊은이들을 징집해 군 복무를 강요하고 무기를 들게 하며 안식일을 무시하도록 하는 것에 승인하기까지 했다. 다니엘스의 그 조치는 분리를 초래하여,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개혁운동의 여러 분파들을 낳았다.

그러한 타협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함께 이어졌고, 그 후 소련을 구성했던 국가들에서도 계속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중국과 같은 정권들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제3세대의 타협은 국가 통치와의 관계에서, 버가모 교회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과 콘스탄티누스의 타협으로 전형화되었다. 그 시기는 또한 프레스콧의 "그리스도의 교리"로 대표되는 평안과 안전의 거짓 복음과 타협한 교회 운영을 보여 주었다.

나는 네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붙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게 하며,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13, 14.

그 '음행'은 부패한 정부들과의 필요한 업무적 관계 유지를 명분으로 나치 독일과 소련 같은 국가들과 노선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결탁한 여러 정권들에 의해 그 나라들에서 박해를 당한 신실한 이들을 외면한 대총회의 행위를 지목한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거짓된 방법론을 상징했는데, 그 거짓된 방법론은 당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대학들 안에 굳건히 확립되어 있었고, 그 대학들은 종교와 건강 양 분야에서 배도한 방법론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기로 합의했다.

예수께서는 시작과 마찬가지로 셋째 세대의 끝도 보여 주셨다. 그분은 1957년에 출판된 책 "Questions on Doctrine"의 발간으로 넷째 세대의 도래를 표시하셨는데, 그 책은 배도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그릇된 사상과 진리 사이에 존재하는 구원에 관한 근본적 구별을 전적으로 거부하였다. 물론 그 책에는 몇 가지 그릇된 가르침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재림 때 기적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 그 책은 스물다섯 명의 장로들이 해에게 절하게 될 세대의 시작을 알렸다.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 아래에서 라오디게아 재림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받아들이도록 만들 정치적·종교적 요소들이 이미 도래했다.

에스겔서의 네 번째 가증한 일은 9장에서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때, 곧 멸하는 천사들이 그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일어난다. 그 환상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다섯째 날, 8장 1절에서 시작된다. 그 환상은 태양에게 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기 전날에 시작되는데, 태양에게 절하는 것은 교황권의 표이며 그의 이름의 수는 "666"이다.

144,000인의 인침 사역은 2001년 9월 11일, 이슬람의 셋째 화가 감행한 땅의 짐승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그 공격은 열방을 분노하게 했고, 늦은 비의 도래를 알렸다. 그러나 늦은 비는, 이슬람의 세 가지 화가 근본 진리임을 보도록 재림 신앙의 기초로 다시 인도된 자들에게만 인정될 것이었다. 그 시점에, 예레미야가 '쉬'(곧 늦은 비)이라고 지칭한 옛 길로 다시 인도된 자들은, 셋째 화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되거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지를 거부하여 결국 그 옛 길로 걷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어서 그들의 선조들이 1863년에 저지른 반역의 죄로 시험을 받았다. 바로 같은 시점에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곧 '참된 의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였다. 그것은 존스와 왜거너의 라오디게아 메시지였고, 또한 '네 바람'으로부터 온 죽은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였으며, 그 '네 바람'은 셋째 화의 이슬람을 상징한다(풀려나려 하는 '성난 말'). 그 충성된 소수는 이어서 그들의 선조들이 1888년에 저지른 반역의 죄로 시험을 받았는데,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 요한계시록 18장의 능력 있는 천사가 강림하였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이 성취되었다.

그들은 이어 늦은 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일로 시험을 받았다. 늦은 비는 과거 시대들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인가? 그 충성된 소수는 또 1919년에 그들의 아버지가 일으킨 반역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 충성된 소수가 그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가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지, 아니면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스물다섯 장로들과 함께 태양에게 절하게 될지를 좌우한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 네 세대에 걸친 모든 반역은 2001년 9월 11일에 그 상응점을 갖는다. 그 날짜는 이사야가 '동풍의 날'로 지칭한 날로서, 14만 4천의 인침의 때의 시작을 표시하며, 인침의 때는 일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의 끝은 시작으로 예증되어 왔으니, 이는 예수께서 언제나 어떤 것의 끝을 그 시작으로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인침 과정의 최종 전개에서 그 기간의 시작에 제시되었던 시험들이 다시 한 번 반복된다.

2001년 9월 11일, 에스겔의 네 가지 가증한 것들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처음 네 교회로 표현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반역자들이 실패했던 시험들이 도래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 짐승의 표 또는 하나님의 인으로 이어지는 시험 과정의 시작을 알렸다.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지도부는 자신들의 기만이라는 울가미에 사로잡혀 있어, 이전의 개혁 운동들(재림주의를 탄생시킨 개혁 운동을 포함하여)로 표상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 되풀이되는 것을 '인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옛 사람들은 밀려의 보석들로 상징되는 교리들을 가짜 동전과 보석으로 흩어 버리고 덮어 버렸다. 킹 제임스 성경의 보석함은 고어의 시대 것으로 격하되어, 죄의 사람의 용어로 표현된 현대어 성경들로 대체되었다.

옛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늦은 비 기별이 평안과 안전의 기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려 했더라도, 과거의 거룩한 역사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들이 바로 14만 4천의 인침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게 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아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더욱 그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것은, 14만 4천의 인침을 가장 직접적으로 식별하게 하는 거룩한 역사들이 말라기 3장을 성취하는 거룩한 역사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말라기 3장이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항상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자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오지 않는 한 그의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한 선지자 엘리야로 상징되었다.

에스겔이 본 칠십 장로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근거 없고, 사실은 포도원이 그 포도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제쳐지고 있는 한 백성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을 터무니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셋째 화의 기별과 길을 예비하는 사자와 포도원의 노래는 모두 그들이 신뢰를 두었던

전통과 관습을 거슬러 증언하며, 늦은 비를 알아보는 데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

14만 4천인의 인침이 마무리되는 때에는 셋째 화에서의 이슬람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주장해 온 이들에게 동일한 시험들이 드러난다. 밀러주의자들의 운동을 촉발한 "지식의 증가"는 1798년 "일곱 때"의 끝에 시작되었다. 14만 4천인의 운동을 촉발한 "지식의 증가"는 상징적 "일곱 때"(126년)의 끝인 1989년에 시작되었다. 그 배도가 심화되어 온 126년 동안,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에 이르렀다.

한 나라나 백성이 유예 기간의 잔을 가득 채우는 때는 셋째와 넷째 세대이며, 그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다니엘서에서 히데겔 강으로 상징된 '지식의 증가'는 또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이 풀릴 때 증가하는 그 지식을 뜻한다.

다음 글에서 다니엘서의 마지막 세 장을 다룰 것이다.

"크나큰 난국과 혼란의 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탄은 가능하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다. 신이라 하는 것도 많고 주라 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거짓되이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최고의 숭배를 바쳐 온 자들은 그때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지성이나 천재성, 재능을 의지해 온 자들은 그때 대열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빛과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 불충함을 드러낸 자들에게는 그때 양 떼가 맡겨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의 엄숙한 사역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족하다고 여기며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 주님께는 흔들림과 시험의 때에 드러나게 될 신실한 종들이 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귀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당신 위에 집중된 광채로 빛나 온 그 빛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거칠고 매력 없어 보이는 외양 아래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에서 나오는 순수한 광채가 드러날 수도 있다. 낮에는 하늘을 바라보지만 별은 보이지 않는다. 별들은 창공에 굳게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그것들을 분간하지 못할 뿐이다. 밤에는 그들의 진정한 광채를 보게 된다." 증언, 5권, 80, 81.